

Beijing 2008

LA 올림픽 김원기의 조언

신지에 세계 6위 도약

“후배들아! 포기 말고 자신을 믿어라”

“시합 끝나기 전까지 모든 선수는 금메달 후보 매 경기 마지막이란 각오로 임하면 결과 좋아”



김 씨는 베이징 올림픽 결산식에도 참여 해 매 경기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후배들을 독려했다.

“올림픽 무대에 서기 위해 모든 선수들이 짧게는 4년, 또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땀과 눈물을 흘리며 준비합니다. 자랑스럽게 올림픽 무대에 선만큼 부상이나 후배들 모두 무대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 삼성생명 직원으로 새 길을 열 계획이었던 김 씨는 한 때 보험왕으로도 화제가 됐지만 빚보증을 선 것이 잘못되는 바람에 2001년 명예퇴직하며 힘든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불굴의 의지로 재기에 성공한 그는 수도권에 있는 월남참전 상이용사들을 위한 보훈단체 ‘심자성 마을회’의 전무이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또 자녀가 없는 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7명의 양아들을 맞아 자신이 받은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고 있다.

“유망주이든 아니든 시합이 끝나기 전까지 모든 선수는 당당히 금메달 후보입니다.” 1984년 LA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 남보를 알렸던 함평 출신의 김원기(47·전 레슬링 국가대표)씨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태극전사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믿어라”고 조언했다. LA 올림픽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62kg급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던 김 씨는 결승전 매트에서 오를 때까지도 금메달 후보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특히 김 씨는 많은 이들이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올림픽 8강전을 잊지 못했다. “당시 세계 선수권 대회 금메달리스트를 꺾고 우승후보로 8강에 진출한 일본의 세이치 오사나와 맞붙었는데,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

니다. 하지만 매트 위에서 못 이기면 대대로 족했다는 각오로 끝까지 버텼고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습니다.” 투혼으로 일군 금메달은 광주·전남 지역 출신의 첫 올림픽 금메달이자 대한민국을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10위에 올려놓은 발판이 됐다. “당시 광주·전남 지역은 정치·경제적인 것은 물론 체육에서도 소외됐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불가능을 넘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의 그 짜릿한 기분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자랑스런 전남의 아들’로 자신을 반겨주었던 지역민들의 당시 환대를 아직도 가슴에 담고 있다. 4년마다 돌아오는 올림픽은 그때의 영광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가슴 떨리는 순간이다.

“24년 전이지만 올림픽이 돌아올 때마다 환희가 되살아납니다. 마치 내가 선수가 된 것처럼 긴장감으로 잠 못 이루기도 하고, 후배들에 대한 안쓰러움으로 올림픽을 맞고 있습니다”

브리티시오픈 우승 4계단 올라

브리티시여자오픈을 제패한 신지에(20·하이마트)가 여자프로골프 세계랭킹 6위로 올라섰다.

7일 발표된 주간 세계여자랭킹에 따르면 지난 주 10위였던 신지에는 브리티시여자오픈 우승에 따른 랭킹 포인트가 추가되면서 6위로 뛰어 올랐다.

신지에는 한국여자오픈 우승 직후인 5월에도 6위까지 올랐지만 점차 하락, 브리티시

여자오픈에 출전할 때는 10위였다. 8위였던 이선화(22·CJ)와 9위를 달렸던 장정(28·기업은행)이 1계단씩 떨어져 9위와 10위가 됐지만 세계랭킹 '톱 10'에 한국 선수는 여전히 3명을 유지했다.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공동 3위로 선전한 지은희(22·힐라코리아)는 6계단이 오른 12위에 자리잡아 '톱10' 진입을 눈앞에 뒀다.

로레나 오조아(멕시코), 안나 소렌스탐(스웨덴),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플라 크리머(미국), 청아니(대만) 등 1~5위는 변화가 없었다.

US여자오픈골프 우승컵

1년 동안 한국에 보관

63년 전통을 자랑하는 US여자오픈골프 대회 우승 트로피가 1년 동안 한국에 머문다.

올해 US여자오픈 우승자 박인비(20·SK텔레콤)는 7일 우승 트로피를 1년 동안 보관

해달라고 모교인 광운대에 전달했다.

63명의 역대 우승자 이름이 새겨져 있는 US여자오픈 우승 트로피에는 박세리, 김주연, 박인비 등 세 명의 한국 선수 이름이 자리를 잡고 있다.

캐나다여자오픈 출전을 앞두고 캐나다에서 훈련 중에 매니저먼트사 IB스포츠를 통해 트로피를 한국에 보낸 박인비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도록 도와준 모교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밝혔다.



삼성광주전자 축구단 '日 국제 축구 페스티벌' 참가

삼성광주전자 축구단(단장 김영균 상무, 감독 김석태 차장·사진)이 9~10일 일본의 오사카에서 열리는 국제 축구 페스티벌에 한국 직장 축구대회 대표로 참가, 일본 클럽선발 2개팀과 국가대표전을 갖는다.

삼성광주전자 축구단은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연합회의 추천으로 이 대회에 참가하며, 제89회 전국체전 광주시

대표로도 출전한다. 삼성광주전자 축구단은 지난 2001년 제 3회 FILA컵 전국직장인축구에 우승, 2005년 제 7회 KICA배 전국직장인 선수권 축구대회 우승, 2006년 제 8회 인페리얼컵 전국직장인축구에 우승 등을 일궈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8월(금) 2008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 시카고 W(08:55-XPORTS) 9월(토) 2008 PGA 챔피언십 2R(02:00-SBS골프)

양궁·태권도 '톱10' 이끈다

한국 내일부터 본격 메달 레이스 돌입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종합 메달순위 10강 수성에 나선 한국 선수단이 9일 본격적인 메달 레이스에 나선다. 한국은 역대 하계 올림픽에서 1984년 로스앤젤레스대회에서 종합 10위로 오른 뒤 1988년 서울대회에서 4위까지 치솟았고 1992년 바르셀로나 7위, 1996년 애틀랜타 10위로 4회 연속 10위 안에 머물러 왔다. 2000년 시드니 대회에서 12위로 밀려던 한국은 2004년 아테네에서 금메달 9개와 은메달 12개, 동메달 9개로 종합 9위에 올라 세계 10강 재진입에 성공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0개 안팎을 수확해 10위 내 성적을 유지한다는 게 목표.

가르다는 각오다. 또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3연패 위업을 이룬 '여자 헤라클레스' 장미란(고양시청)은 라이벌 무성상(중국)이 불참할 것으로 보여 금메달을 예약했다. 이와 함께 남자 체조 간판인 '비운의 스타' 양태영(포스코건설)도 남자 체조 개인종합과 평행봉에서 금빛 차지에 도전한다. 이 밖에 '한관승의 사나이' 이원희(한국마사회)의 올림픽 2연패 시도를 좌절시키고 베이징행 티켓을 얻은 남자 유도 73kg급의 왕기춘(용인대)과 아테네 대회 때 근육 경련 탓에 금메달을 놓쳤던 '작은 거인' 최민호(한국마사회)도 남자 유도 60kg급에서 맨 뒤 시상대에 오르겠다고 버르고 있다. 또 아테네대회 정상에 올랐던 탁구 간판 유승민(삼성생명)은 민리장성을 허물고 2연패를 달성하겠다는 다짐이다.

맨유, 유벤투스와 무승부 박지성 선수 명단서 빠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연패에 도전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유벤투스(이탈리아)와 프리시즈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고 박지성(27)은 결장했다. 맨유는 7일(한국시간) 새벽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치러진 유벤투스와 프리시즈 마지막 경기에서 득점 없이 0-0으로 비겼다. 최근 1군 훈련에 합류하면서 출전이 기대됐던 박지성은 교체선수 명단에도 빠지면서 그라운드를 밟지 못한 채 오전 하그리브스, 케리 네블, 웨인 루니, 루이스 나니 등 동료와 VIP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또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이자 유벤투스 사령탑을 맡았던 파비오 카펠로 감독도 VIP석에서 관전했다. 맨유는 안전을 이유로 취소했던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퍼레이드를 경기 직전 경기장에서 약식으로 펼쳐 7만여 홈 팬들의 갈채를 받았다.

▲제 1회 KBO총재가 전국대학야구대회 (12:50-SBS스포츠) ▲제 1회 KBO총재가 전국대학야구대회 (12:50-SBS스포츠)

대인동상일부동산 (02)223-1140, 9210 번 011-802-2532 (광주광역시 신원동, 대인동 2층 2번방)

일가공인중개사 (02)234-8216 번 011-609-0836 (광주우체국부근) 상가건물 매도, 토지매매, 전월주택

상무랜드공인중개사 (02)383-5221 번 011-609-5221 (구상무대 정문) 건물, 땅, 분양·확원·수확·시당기타

HOME CON 흥건 不動産 리서치 상무지구 한국은행 뒤 ☎ 062) 385-9994 (부동산) 프로젝트 仲介・開發・리서치 선연!

금당부동산 (062)223-7400 번 016-632-5659 (충장로5가 사거리 2층, 금남로 5가와 엔터시네마 중근) 매매·교환·개발·건축부동산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해결하였습니다.